

군대 언어,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관희

호서대학교 한국어문화전공 교수

1. 들어가며

얼마 전, 국방부는 새로운 ‘군인 복지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다. 제초, 제설 등의 사역 업무를 민간 인력에 맡기고 병사들도 일과 시간 이후에는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한다. 기강 해이, 상대적 복무 강도의 약화, 보안의 문제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전투 준비와 교육 훈련 등 군 본연의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와 더불어, 2016년 3월에 발표된¹⁾ 국방부의 지침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른바 ‘다나까’ 말투²⁾가 군의 공식적인 높임말인 것으로 대내외에 잘못 인식되고 있고, 그 결과 ‘-(지) 말입니다와 같은 정체불명의 표현이 대표적인 군대식 표현으로 통용됨을

1) 2016년 4월에 종영된 한국방송공사의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당시에 큰 인기를 누렸으며, 군인으로 등장하는 극 중 인물이 ‘-(지) 말입니다’를 자주 사용하여 일종의 유행어로 자리 잡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띠는 발표였다.

2) ‘다나까’에 대해서는 ‘-다, -나, -까의 종결 어미를 의미한다는 설과 ‘-다 혹은 -까를 뜻한다는 설이 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해요체를 사용할 수 없고 ‘다나까’ 말투를 써야 한다는 법적·정책적 규정은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부대 관리 훈령’ 제13조(언어 태도)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예의를 갖춘 표현’을 강조할 뿐이다. 실제로 군대 내에서도 ‘장교-부사관 간’, ‘장교-장교 간’, ‘부대가 다른 병 상호 간’에는 해요체가 자연스럽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과 이후의 생활관에서의 대화나, 일상 대화 등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대화 상황에서는 그간 암묵적으로 금지되었던 해요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당시 지침의 핵심이었다.

문제는 2018년의 그것에 비해 2016년의 정책은 안정적인 정착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다. 상당히 오랜 기간 군대라는 담화 공동체 내에서 모종의 의미를 생성해 내며 암묵적으로 공유되어 온 표현들을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지침’으로만 전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의 국방부 발표 이후는 물론 비교적 시간이 흐른 시기까지도 다음의 신문 기사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 (1) 지침이 구체적이지 못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교육 훈련과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다나까’를 써야 하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선택적으로 ‘해요체’를 써도 된다고 했다. 장병들은 “공식적인 자리와 비공식적인 자리를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한다. 또 처음 시행됐을 때 대부분의 간부는 “내무반 안에서 사병들 간에 ‘해요체’를 쓰고, 사병이 간부들에게 쓰는 건 안 된다.”라고 이해했다. 지금은 사병이 간부들에게 쓰는 경우도 많다. 지침에 해요체를 쓸 수 있는 대상이 별도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 육군 일병은 “신병교육대에서 다나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만 배워 어느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 애매하다. 대상도 헛갈려 소대장한테 해요체를 썼다가 눈치를 살피기도 한다.”라고 말했다(조선일보, 2017년 11월 30일).

사실, 정책적 차원에서의 군대 언어에 대한 관심은 2016년의 ‘올바른 병영 언어 사용 지침’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국방부의 발주로 수행된 일련의 정책 연구(장소원 외, 2011; 2012; 2014)는 물론 교재의 형태로 제작되어 일선 부대에 배포된 박재현 외(2015) 등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립국어원 연구 보고서인 박재현 외(2016)에서는 군대 언어에 대한 교육용 자료를 구안하면서 군대 언어에 대한 장병들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도 하였다. 한편, 군대 언어에 대한 학술적 접근은 더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져 왔는데, 박재권(1999a, 1999b, 1999c, 2000)에서는 일본어 투 군대 용어에 대해, 이지수 외(2011)에서는 외래어 투 군대 용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최근 연구인 박재현·조진수(2017)에서는 군대 은어와 낮선 한자어의 문제를 사용자의 인식에 따라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 따른 교육 방향을 모색하기도 한다. 또한, 어법적 차원에서 군대 언어에 접근한 연구로는 압존법을 포함한 높임법의 문제를 다룬 이정복(1994), 박용한(1997, 2008, 2012) 등을, ‘말입니다’라는 특수 표현에 대해 접근한 박용한(2000), 이관희(2017) 등이 확인된다. 이에 더해, 박용한(2016)에서는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군대 언어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참고가 된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직간접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박재현 외(2015, 2016), 박재현·조진수(2017), 이관희(2017)에 기반하여 군대 언어의 양상에 대해 그 범주를 달리하여 다루고자 한다.³⁾ 다시 말해, 박재현 외(2015, 2016)를 근거로 군대 언어에 대한 양상화를 시도하고, 특정 언어 현상에 주목한 박재현·조진수(2017), 이관희(2017)를 소개하며 미시적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군대 언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박재현 외(2015, 2016)의 목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 이 점에서, 이 글은 박재현 외(2015, 2016), 박재현·조진수(2017), 이관희(2017)의 핵심 내용이나 사례를 가져왔음을 밝힌다.

(2) 박재현 외(2015)의 목차

- ① 바르고 고운 말(순화어)
- ② 예의를 갖춘 말(어법에 맞지 않는 말)
- ③ 존중과 배려의 말(언어폭력)
- ④ 하나가 되는 말(차별 표현)
- ⑤ 이성을 배려하는 말(성차별·성희롱 표현)

(3) 박재현 외(2016) 장병 언어 교육 자료의 목차

- ① 군대 바른 어법
 - ① 군대식 오용 표현 바로잡기
 - ② 과도한 대답 표현을 강요하지 않기
 - ③ 높임말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 ④ 호칭어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 ② 존중과 배려의 소통 방법
 - ① 예의를 갖추어 대화하기
 - ② 칭찬과 검양으로 소통하기
 - ③ 효과적으로 지시하고 보고하기
 - ④ 공감하며 대화하기
 - ⑤ 비폭력 대화하기
 - ⑥ 상대를 존중하며 말하기
- ③ 어법에 맞는 보고서 작성법(간부용)
 - ① 순화어 사용하기
 - ② 적절한 단어 선택하기
 - ③ 기본에 충실한 문장 사용하기
 - ④ 어법에 맞게 표기하기

그런데 이 중에서 (2)의 ③, ④, ⑤, (3)의 ②는 공동체 내의 구성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원만한 관계 형성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 이기는 하지만 군대라는 담화 공동체의 특수성 속에서 다루기에는 제한적이다.

욕설·비속어·분노 표현, 지역·인종·세대·성 등에 따른 차별 표현, 성희롱·성폭력 표현 등은 모든 담화 공동체에서 피해야 할 언어들이기 때문이다.⁴⁾ 또한, (3)의 ㉓ 역시 ㉑에서 제시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군대 언어의 변별적 속성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이 글에서는 군대라는 담화 공동체가 지니는 특수성에 기반하여 생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2)의 ㉒을 박재현·조진수(2017)를 통해 살피고, 장을 달리하여 (2)의 ㉒, (3)의 ㉑에서 다루는 문제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군대 언어로 인식되는 ‘-(지) 말입니다’에 대해서는 별도의 꼭지를 두어 논의할 것이다.

2. 순화 차원의 접근: 외래식 표현, 군대 은어, 낯선 한자어 등

‘뽀글이, 깔깔이, 짬밥, 육공, 총기 수입, X-반도, 고참, 구보, 오버로크, 기도비닉(企圖秘匿), 등화관제(燈火管制)’ 정도의 말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어종 측면의 기원이나 사용 범위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이른 시기부터 국어 순화 혹은 말 다듬기의 대상으로 지적되어 왔던 표현들이다. 박재현 외(2015)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양상의 표현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표시는 순화어 혹은 지시 대상).

4) 다만, (2)의 ㉒에서 부분적으로 다루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군별 상이한 표현’은 군대 언어의 특수성이 반영된 내용이다. 예컨대 2007년 해병대 사령부는 ‘확인형 접호’를 기존의 ‘순검’으로 환원한 바 있는데, 2012년 국방부에서는 순검을 포함한 ‘체스트, 주계, 주계별, 조별 과업, 석별 과업, 격실’ 등 해병대 특수 용어를 군 일반 용어로 바꾸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박재현 외(2015:130)에서는 군별 상이한 표현의 사례로 ‘자대 배치(육군, 공군)/실무 배치(해군, 해병대), 보직(육군, 공군, 해병대)/메닝(해군), 주특기(육군, 해병대)/특기(공군)/작별(해군), 식판(육군, 공군, 해군)/쥬라이(해군, 해병대), 소화기(육군)/총기(공군)/소병기(해군, 해병대), 외박(육군, 해병대)/특박(공군)/상륙(해군, 해병대), 초병(육군, 공군, 해병대)/현문당직(해군), 부대차럿(육군, 공군)/총원차럿(해군, 해병대), 조교(육군, 공군)/D.I(해군, 해병대)’를 제시한다.

(4) 박재현 외(2015)에서 제시하는 순화 대상 군대 언어

- ① 군대 은어: 귀돌이(→ 귀마개), 깡새(→ 이발병), 깔깔이(→ 방상 내피), 땡보(→ 편한 보직), 말년(→ 전역 대기병), 뽀글이(→ 봉지 라면), 사제/싸제(→ 군대 밖 물건), 아들(→ 1년 늦게 입대한 후임병), 아버지(→ 1년 먼저 입대한 선임병), 짬(밥)(→ 식사, 군 경력), 짬 처리(→ 남은 밥 처리, 떠넘기기), 짬찌(→ 신병, 계급이 낮은 군인), 피돌이(→ 충성마트 관리병), 꿀빨다(→ 편안하게 생활하다), 뽕이치다(→ 고생하다), 짱박히다(→ 일을 피하기 위해 숨다)
- ② 비공식적 군사 용어: 다찌(→ 5/4톤 군 차량), 딱판(→ 인원 현황판), 뚜껍(→ 전투모, 방탄헬멧), 모포(→ 임무정보보호태세), A급(→ 1급, 최상급), 5대기(→ 5분 대기조), 육공(→ 2.5톤 트럭), 화이바(→ 방탄 헬멧)
- ③ 일본어: 가라(→ 가짜, 헛-), 구루마(→ 수레), 나라시(→ 고루 피기, 평탄화 작업), 다이(→ 대, 받침), 단도리(→ 채비, 단속, 마무리), 분빠이/뽀빠이(→ 분배, 나눔), 뽕끼(→ 속이는 일), 쇼부(→ 흥정, 결판), 시다(→ 보조원), 시마이(→ 끝냄, 마감), 아타라시이다라시(→ 새것), 아싸리앗사리(→ 아예, 깔끔히), 와쿠와꾸(→ 틀), 유도리(→ 용통, 용통성), 쿠사리(→ 면박, 핀잔)
- ④ 일본식 한자어: 각개 점호(→ 인원 점검), 계원(→ 담당자, 담당 병사), 고참(→ 선임, 선임병), 구보(→ 달리기), 내무반(→ 생활관), 마대(→ 포대, 자루), 모포(→ 담요), 시건장치(→ 잠금장치), 요대(→ 허리띠), 익일(→ 다음날, 이튿날), 잔반(→ 남은 밥, 음식 찌꺼기), 주기(→ 기록, 표기), 착모(→ 모자를 쓰시오), 착석(→ 자리에 앉으시오), 총기 수입(→ 총기 손질)
- ⑤ 일본식 외래어: 공구리(→ 콘크리트, 콘크리트 반죽), 기브스/깁스(→ 석고 붓대), 더블백(→ 의류대), 라지에타(→ 방열기, 라디에이터),

미싱/미씽(→ 물청소, 광택 작업), 밤바(→ 완충기, 범퍼), 빵꾸(→ 구멍, 핑크), 추리닝/츄리닝(→ 운동복, 활동복)

- ⑥ 외래어·외국어: 가이드라인(→ 지침, 방침), 데이터/데이타(→ 자료), 디렉터(→ 탐지기), 루트(→ 통로, 경로), 모토(→ 신조, 좌우명, 제목, 표어, 목표), 메딕(→ 의무병), 바리깡(→ 이발기), 바리케이드(→ 방어벽, 방책, 방벽), 바인더(→ 보관철), 바인딩(→ 경계 표시), 사이드카/사이카(→ 호위 차량), 시에스알(CSR)(→ 통제보급물), 오버로크(→ 휘잡치기, 푸서박기), 왁싱(→ 왁스 입히기, 왁스 작업), 인트라넷(→ 내부 전산망)

- ⑦ 낯선 한자어: 공병(→ 빈 병), 불입(→ 납부, 치름, 냄), 시방서(→ 설명서), 이격 거리(→ 떨어진 거리), 입수 보행(→ 주머니에 손 넣고 걷기), 적시함(→ 모래함), 적치하다(→ 쌓아 놓다, 쌓아 두다), 집하(→ 모음), 축수 엄금(→ 손대지 마십시오), 취식물(→ 음식물)

③, ⑤, ⑥, ⑦의 경우에는 ‘시에스알(CSR), 오버로크, 입수 보행’ 정도를 제외하면 비단 군대뿐 아니라 일반 담화 공동체에서도 보편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례들이기에 특별한 논의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군대라는 담화 공동체 내에서만 흔히 쓰이는 나머지 사례들이다. 그런데 언어 자체가 지니는 속성이 그러하듯이 이들 표현들에 대해 교조적이고 일방적인 ‘순화 지시’만으로 하루아침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내무반(→ 생활관), 더블백(→ 의류대)’ 등처럼 이미 순화어가 보편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의미가 완전하게 일치하는 순화어를 제시하기 어렵거나 해당 표현이 생성되어 소통되는 담화적 맥락을 일시에 소거하기 어려워 여전히 선호도가 높은 표현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해당 표현들에 대한 실제 사용자들의 개선 필요성과 수용 가능성을 조사하고 이를 기준으로 (5)와 같이 유형별 교육 및 접근 방식을 논의한 조진수·박재현(2017)의

논의⁵⁾는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을 준다. 요컨대, 군대 언어 역시 일반 언어의 보편적 속성을 토대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외부에서 개입되는 강제적 힘의 논리만으로는 개선을 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개별 표현들이 지니는 담화 공동체 내부의 역동적 힘에 주목하여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5) 군대 은어와 낮선 한자어의 사용자 인식 유형별 교육 방향(조진수·박재현, 2017:235)

- 개선 필요성과 수용 가능성이 모두 높은 표현 → 현재의 순화어 및 대체 표현을 교육에 적극 활용(축수 엄금, 불입, 공병, 등화관제 등)
- 개선 필요성과 수용 가능성이 모두 낮은 유형 → 개선 필요성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수용 가능성이 높은 순화어 혹은 대체 표현을 개발하여 보급(말년, 깔깔이, 뽀글이, 아버지, 아들 등)
- 개선 필요성에 비해 수용 가능성이 낮은 유형 → 원 표현이 사용되는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각 맥락에 맞는 대체 표현을 제시(은어에 내재한 의도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명시적인 지적과 교정 교육/개선 필요성 교육도 병행(짹짹, 짹, 뽕이 치다, 짹 박히다, 꿀 빨다 등)

3. 어법 차원의 접근: 대답 표현, 높임법, 호칭어 등

‘어법’의 영역은 상당히 넓게 분포하기에 제한된 지면 안에서 군대 언어의 어법적 특성을 모두 다루기는 어렵다. 여기에서는 군대의 특수성을 반영

5) 조진수·박재현(2017)에서는 전역한 지 2년 미만의 장병(예비역) 201명을 대상으로, 군대 은어 26개와 낮선 한자어 12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하면서도 해당 담화 공동체의 인식이 어법 차원에서 투영되어 실현된 일부 표현들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3.1. 그릇된 군기 강요: 과도한 대답 표현

(6) 병장: 오 이병, 입대하기 전에 국문과 다녔다고 했지?

이병: 네.

병장: 뭐? 네? 누가 그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쳤어? 이게 빠져 가지고.

(7) 병장: 너희 부서 일일 결산 보고 왜 아직 안 보내?

이병: 네?

병장: 뭐? 네? 이게 빠져 가지고. 여기가 사회냐? 이따가 생활관 가서 보자.

(8) 병장: 오 이병, 오늘 불침번 한번 초 누구야?

이병: 잘 모르겠습니다.

병장: 뭐? 이게 빠져 가지고. 그렇게 대답하게 돼 있냐?

이병: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6)~(8)은 특히 병 상호 간에 흔히 발생하는 상황으로, 선임병의 질문이나 지적에 대한 후임병의 대답으로 구성되는 담화이다. (6)은 단답에 대한 거부감과 후임자의 군기를 보여 준다는 차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혹은 ‘네, 알겠습니다.’로 답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인데, 아무래도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저해하다 보니 이를 짧게 발음하여 ‘넷습다.’라는 정체불명의 표현까지 양산된다고 한다. (7)의 경우는 선임병의 말이 빠르거나 특정한 군대 용어 혹은 표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후임병이 되묻기 발화를 하는 장면인데, 군대에서는 흔히 후임병 자신이 제대로 듣지 못한 실수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잘 못 들었습니다.’라는 대답을 요구한다고 한다. (8)도 유사한 상황인데, 선임병의 질문에 대해 후임병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 단순히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은 무례를 범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속에서 답을 구하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도의 대답이 통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과도한 대답 표현에 대한 강요는 이른바 ‘군기’에 대한 그릇된 인식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대답 표현에 대한 다음의 설문 조사⁶⁾에서도 드러나는데 분대장의 질문에 대해 이등병이 답변할 때에는 ‘네.’가 거의 허용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가 자연스러움에 비해 답변자가 같은 계급인 병장일 때에는 ‘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넷습니다.’라는 축약 형태 역시 많이 쓰인다는 것이다. 되묻는 대답의 경우에도 계급을 막론하고 ‘잘 못 들었습니다.’가 자연스럽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가운데 ‘네?’가 허용 되는 비율은 답변자의 계급에 따른 차이가 명확하다. 이러한 경향은 후임병이 선임병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의 대답 표현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답변자가 이등병일 때에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를 포함하는 대답이 자연스럽다는 응답이 월등히 많은 것에 비해 병장의 경우에는 단순히 잘 모르겠다고 답해도 된다는 응답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렇듯 과도한 대답 표현은 군대 구성원 전체에 고루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계급의 후임병들이 보여야 하는 ‘군기의 표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6) 3장에서 제시하는 설문 조사 결과는 별도로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면 박재현 외(2016)에서 제시된 것으로,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전역 2년 이내의 예비역 201명에게 자신의 복무 경험에 비추어 각각의 상황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답변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분대장(병장): 오늘 검열 준비 다 했나?	네.	네, 그렇습니다.	넛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답변자가 이등병일 경우	3명 1.49%	120명 59.70%	9명 4.48%	69명 34.33%
답변자가 병장일 경우	93명 46.27%	45명 22.39%	40명 19.90%	23명 11.44%
분대장(병장): 행정실 가서 우리 분대 치장 물자 수령해라.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다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자가 이등병일 경우	2명 1.00%	157명 78.11%	5명 2.49%	37명 18.41%
답변자가 병장일 경우	70명 34.83%	105명 52.24%	17명 8.46%	9명 4.48%
분대장(병장): 야간 근무 초번초가 누구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자가 이등병일 경우	13명 6.47%	75명 37.31%	13명 6.47%	100명 49.75%
답변자가 병장일 경우	111명 55.22%	65명 32.34%	8명 3.98%	17명 8.46%

3.2. 그릇된 위계 반영: 과도한 높임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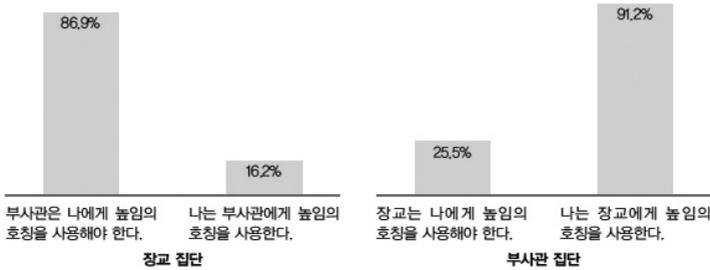
군대에서의 높임 표현이 일반적인 담화 공동체와 차이를 보이는 지점으로 우선 압존법의 문제를 살필 수 있다. 주지하듯이, 2011년에 발간된 《표준 언어 예절》(국립국어원)에서는 직장에서의 압존법은 우리의 전통 언어 예절과 거리가 있으며 가족 간이나 사제 간처럼 사적인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그런데 군대는 다른 사회 조직들에 비해 계급 간의 위계가 훨씬 중시되는 공간이다 보니 압존법의 사용을 과도하게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입대한 달(月)이나 기수 단위로 위계가 결정되는 병사 집단에서는 전입 신병이 압존법을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 전체 부대원의

서열을 암기하는 일이 부대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국방부에서는 2016년 3월 1일에 부대 내에서 압존법 사용을 폐지하라는 지침을 일선 부대에 하달한 바 있다. 그러나 엄격한 위계 체계에 근거한 압존법에 대한 경직된 인식이 하루아침에 개선 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바, 실제 제시된 발화 장면이 복무 당시의 언어 사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묻는 다음의 질문에 대해 '분대장, 소대장, 주임 원사의 계급을 막론하고 압존법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세부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대장: 이거 누가 알려 줬어? 일병: 네, 분대장이 알려 줬습니다.	7명 3.48%	7명 3.48%	30명 14.93%	49명 24.38%	108명 53.73%
중대장: 이거 누가 알려 줬어? 일병: 네, 소대장이 알려 줬습니다.	7명 3.48%	10명 4.98%	28명 13.93%	53명 26.37%	103명 51.24%
중대장: 이거 누가 알려 줬어? 일병: 네, 주임 원사가 알려 줬습니다.	25명 12.44%	37명 18.41%	33명 16.42%	38명 18.91%	68명 33.83%

그런데 위의 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높임 표현에 대한 흥미로운 지점은 '주임 원사에 대해서는 다른 두 장면에 비해 압존법 사용이 자연스럽다는 응답 비율이 다소 낮다는 점이다. 계급으로는 엄연히 주임 원사 < 소대장 < 중대장의 관계가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통념상 연령 차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높임의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위계 관계를 판단할 때 계급 요인과 연령 요인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제3자에 의한 판단뿐 아니라 장교-부사관 집단 사이에서도 흔히 발생하는데, 박용한(1997)의 조사 결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부사관 집단 역시 장교들이 자신들에게 높임의 호칭을 사용해 줄 것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장교 집단이 부사관 집단을 높여 부르는 비율은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3.3. 그릇된 관계 형성: 어색한 호칭어

병사들 사이의 위계 관계가 일반적으로 부대 단위로 형성되는 군의 특성상 다른 부대에 소속된 병사들에게는 계급을 무시한 채 ‘아저씨’라고 부르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한다.⁷⁾ 군대에서의 경험과 계급이 철저히 배제된다는 점, 상대방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군인다운 호칭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방부 및 각 군에서는 이러한 호칭을 계도하기 위한 노력을 일찍부터 기울여 왔다. 특히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1932호) 제29조에서는 ‘직책 등 신원 불상의 군인 상호 간에는 전우 또는 전우님으로 호칭한다.’라고 하여 ‘전우(님)’이라는 대체 표현까지 제시하였다. 그런데 ‘전우(님)’은 20대 초중반의 장병들에게 선호되기 어려운 한계⁸⁾ 속에 여전히 ‘아저씨’가 많이 쓰임은 다음의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7) 또한 이들 사이에서는 계급과 무관하게 해요체가 통용된다.

8)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2014년 12월 14일) ‘용사’라는 호칭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한다. 물론, 아저씨의 대체 표현은 아니고 현행 4단계 병사 계급을 일원화하여 병 상호 간의 호칭을 ‘용사’로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고 한다.

* 소속이 서로 다른 부대의 병사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어떻게 부르는지 표시하세요.

1	아저씨	138명(68.66%)
2	전우님	22명(10.95%)
3	철수 씨(이름 + 씨)	21명(10.45%)
4	김 일병(성 + 계급)	2명(1.00%)
5	김 일병님(성 + 계급 + 님)	18명(8.96%)

장소원 외(2011)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아저씨’라는 기존 호칭어에 너무 익숙해졌을 뿐더러 대안으로 제시된 표현이 다소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다. 요컨대 호칭어 ‘아저씨’를 둘러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언어적 관습을 공유하는 집단으로서의 특정 담화 공동체 내에서 특정 표현이 소통되는 맥락을 소거한 채 외부에서 개입되는 강제적 힘의 논리로만 변화를 꾀하는 일은 무리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대체 호칭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빈도	비율
부대에서 이미 ‘아저씨’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364명	34.8%
‘전우님’, ‘용사님’ 호칭이 익숙하지 않아서	484명	46.2%
기타	199명	19.0%
합계	1,047명	100.0%

4. 군대 언어 접근의 한 방식: ‘-(지) 말입니다’와 ‘여쭙 봐도 되겠습니까?’의 관계

앞서 살폈듯이, 이 글에서는 군대 언어를 일방적인 교정과 처방의 대상으로만 부각하기보다는 담화 공동체로서의 군대 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언어 사용자 간의 관계적 속성에 토대를 두고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언어 주체의 역동성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장에서는 대표적인 군대 언어로 인식되고 유통되는 ‘-(지) 말입니다’에 대해 다룬 이관희(2017)의 논의를 개괄적으로 소개하며 군대 언어를 바라보는 하나의 접근 방식을 보이고자 한다.

이관희(2017)에서는 자료 수집 시기를 기점으로 1년 6개월 이내에 전역한 30명을 대상으로 복무 당시에 ‘-(지) 말입니다’를 사용하거나 들었던 장면을 재구성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해당 표현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였는가를 범주화하였다. 즉, 군대 내의 담화 맥락 상황에서 ‘-(지) 말입니다’가 부담하는 다양한 의미 기능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조사 대상 30명 중 14명은 해당 표현에 복무 초기에만 노출되었거나 아예 노출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추후의 인터뷰를 통해⁹⁾ 다양한 내외적 요인들에 의해 공손성 실현을 위한 언어적 장치 ‘-(지) 말입니다’가 모종의 변화 과정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몇몇 맥락에서는 ‘여쭙 봐도 되겠습니까?’라는 유표적 언어 장치가 ‘-(지) 말입니다’를 대체하는 양상이 분석되었다.

9) ‘-(지) 말입니다’의 사용 집단이 재구한 상황 각각에 대해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본래의 의도를 살려 어떻게 표현하였는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4.1. ‘말 흐리기’나 ‘존대 유지’를 위한 덧붙임

- (9) [상황] 다른 일을 하느라고 병장이 지시한 일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이유를 설명함.

병장: 너 어제 부식 창고 정리하라는 거 다 했냐?

일병: 아직 다 못했습니다.

병장: 왜? 그거 내일까지 다 해야 하는데.

일병: 오후에 ○ 상병이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주임원사님이 말입니다, 식당 주변 배수로 청소하라고 해서 말입니다.

- (10) 약간 투정 같은 게 섞여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말입니다’를 안 쓰면 그냥 ‘했는데’, ‘원사님이’, ‘해서’ 이 부분을 약간 늘이게 되잖아요. 근데 또 그러면 병장이 답답해하고 빨리 말하라고 욕까지르니까 ‘말입니다’를 쓰게 돼요(육군, 보병 병과, 2015년 11월 전역).

- (11) 만약에 ‘말입니다’를 안 쓰는데, 중간에 고침이 말 중간에 자기 말을 해 버리면 저는 어쨌든 반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냥 대화가 빨리 전개될 때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게 습관이 되면 무의식중에 반말 비슷하게 튀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말입니다’를 막 넣게 되는 거죠(육군, 수송 병과, 2015년 7월 전역).

(10)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9)의 경우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말입니다’의 자리에 통용 보조사 ‘요’를 길게 발화하겠지만, 해요체를 암묵적으로 금기하는 군대에서는 또 다른 언어적 선택 행위를 하고는 한다. 즉, ‘말입니다’에는 ‘말 흐리기’의 기능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11)의 진술과도 맞닿는데 대화 순서가 불규칙적인 상황에서 ‘말입니다’는 하급자가 지속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음을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표지로도 기능한다.

물론, 상급자를 철저히 존대해야 하는 군대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지) 말입니다’를 사용하지 않는 집단은 (12)에서와 같이 ‘말입니다’가 담당하는 말 흐리거나 존대 유지의 의미 기능을 대체로 공손한 말투나 목소리, 눈 맞춤, 자세 등의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으로 대체한다고 보고한다.

- (12) 저희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없이도 그냥 알아서 예의를 차리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교체를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목소리가 작아지고 공손한 태도를 보이고(육군, 행정 병과, 2015년 7월 전역).

4.2. 청유나 제안 시의 부담 완화

가장 많은 상황이 재구된 양상인데, 청유나 제안 발화에 수반되는 발화 수반력, 즉 실행 의무 부담감을 줄이고 공손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로 ‘-(지) 말입니다’를 사용하는 상황이다.¹⁰⁾

- (13) [상황] 작업의 편의를 위해 부사관에게 차량 사용을 제안함.

상병: 시멘트가 무겁고 양도 많은데 차량 하나 끌고 와서 거기다 싣고 나르지 말입니다.

부사관: 안 돼. 수송부 차량은 함부로 옮기는 거 아니야. 그냥 나르자.

상병: 더 쉽고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차 쓰시지 말입니다.

10) 일반적으로는 하십시오체 청유형 어미의 보충형으로 요-통합형 ‘-시지요’가 쓰임에 비해 군대에서는 해요체가 규제되는 맥락과도 연관되는 지점이다.

(14) 그냥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두돈반 빌려 오면 금방 끝나고 다 같이
 될 수 있는데, 그때 수송관이 진짜 꼬장꼬장했거든요. 저는 밑에
 애들도 있고 하니까 좀 쉽게 하면 좋겠는데. 그냥 좀 쓰자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막 ‘쓰자, 써야 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으니
 까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육군, 수송 병과, 2015년 7월 전역).

(13)에서는 하급자가 상급자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새로운 제안을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감추고 상급자의 체면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 ‘-지 말입니다’를 선택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15)의
 진술에 따르면 이러한 ‘-(지) 말입니다’의 자리에 ‘여쭙 봐도 되겠습니까?’
 라는 유표적 언어 형태가 대체된다고 한다. 청유나 제안이 지니는 실행
 부담감은 최소화하고 질문의 의미 기능을 표면화함으로써 상급자에게 부여
 되는 부담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때, ‘여쭙 봐도
 되겠습니까?’는 청유나 제안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발화 행위 자체에
 대한 질문이라는 점을 특기할 만하다.

(15) 넌 이병이니까, 뭐 물어보거나 그럴 때 무조건 ‘-해도 되는지 여쭙
 봐도 되겠습니까?’ 꼭 붙여라. ‘저녁 먹으러 가실지 여쭙 봐도 되겠습
 니까?’, ‘차 쓰면 안 될지 여쭙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육군, 행정 병과, 2015년 7월 전역).

4.3. 단정적 표현에 대한 부담 완화

상급자에게 문제점 등을 보고해야 하는 경우에 단정적 표현보다는 소극
 성이 느껴지는 ‘-지 말입니다’를 사용함으로써 단언적인 성격을 다소 누그러
 트리는 상황이다. (16)이 이에 해당되는데, 특히 (17)의 진술에서도 확인

가능하듯이 하급자는 단정의 의미가 강하게 표출되는 발화보다는, 단순히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판단이나 이후의 대책 등에 대해서는 상급자에게 맡기는 의미로 발화하려 할 것인데, 그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 바로 ‘말입니다’라는 것이다(박용한, 2000:179).

(16) [상황] 약간 짜증나 있는 중사에게 문제를 보고해야 함.

분대장: 반장님, ○일 연대장님 방문 맞습니까? 애들 장구류 새 걸로 준비시키면 됩니까?

반장: (언성을 높이며) 어, 몇 번을 말하나? 지난번처럼 빵구 나는 일 없게 해라.

분대장: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 일병이 장구류 새 거가 없지 말입니다.

반장: 아, 왜 또 없어. 알겠어, 기다려 봐. 내가 알아볼게.

(17) 이때 중사님이 다른 일로 약간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원래 말하려던 것은 ‘△ 일병이 장구류 새것이 없다’는 거였는데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한번 하고 얘기를 시작하던 거였어요. 근데 돌아오는 말이 ‘몇 번을 말하나?’ 이렇게 나오니까 ‘새 거가 없습니다’ 딱 잘라 말해 버리면 바로 ‘그래서 나보고 어찌라고?’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의미로 쓰게 되는 거예요 (육군, 보병 병과, 2015년 11월 전역).

그런데 (18)에서처럼 대체 표현 ‘여쭙봐도 되겠습니까?’ 역시 발화의 단언적 성격을 약화시키기 위한 언어적 전략으로 쓰인다. ‘장구류 새 거가 없습니다.’의 단언에 덧붙여 판단과 대책 수립을 상급자의 몫으로 돌리는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때에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쭙 봐도 되겠습니까?’라는 다소 과도한 표현을 사용하여 발화 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닌 질문 행위 자체에 대한 허락에 초점을 두으로써 최대한 자신의 공손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18) 이런 것도 앞에 거랑 비슷하게 ‘장구류 새 거가 없습니다. 이거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쭙 봐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육군, 행정 병과, 2015년 7월 전역).

4.4. 확인 질문에 대한 부담 완화

위계를 중시하는 군대에서 하급자의 질문은 체면 위협 행위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하다. 심지어 일부 부대에서는 ‘-까’를 통한 단정적 질문 자체를 금지하는 악습도 존재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대에서는 평서형 어미를 유지한 채 어조만 바꾸어서 ‘-지 말입니다’를 통해 상급자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19)가 그러한 경우이다.

(19) [상황] 작업 내용을 고참에게 확인하려 함.

나: ○ 병장님, 여기부터 예초기로 밀면 되지 말입니다?

병장: 그래 거기서부터 나 있는 데까지 밀고 와.

(20) ‘안 됩니까?’는 되게 건방져 보일 것 같아요. ‘내가 알기는 아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본다’ 하는 상황이잖아요(육군, 보병 병과, 2015년 11월 전역).

(20)에서도 확인되듯이 일반적인 질문 상황이라기보다는 하급자가 숙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확인 차원의 질문이며, 이때에 ‘-지 말입니다’가

의문형으로 쓰인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21)의 진술처럼 질문 행위에 대한 허락 표현을 통해 질문의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해 ‘여쭙 봐도 되겠습니까?’를 사용한다. 이때, 그 대답은 허락 여부에 대해서가 아니라 질문 내용에 대해 이루어짐을 통해서도 ‘여쭙 봐도 되겠습니까?’가 일종의 관습적인 표현으로 유통된다고 볼 수 있다.

- (21) ‘말입니다’를 올려서 물어보면 더 불공손해 보여요. 까부는 것 같고 ‘말면 되는지 여쭙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쓰죠. 대답은 ‘그래, 거기까지 밀어.’ 이렇게 나오죠(육군, 행정 병과, 2015년 7월 전역).

4.5. 농담이나 맞장구를 통한 친밀감 형성

농담이나 맞장구의 상황에서 ‘-지 말입니다’가 쓰이는 경우이다. 일반적인 담화 공동체와 달리 폐쇄성과 위계성이 강한 군대에서는 구성원 간 관계의 다층성이 쉽게 형성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담화 상황에 따른 언어적 코드 전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군대에서는 ‘-지 말입니다’가 비격식적 장면에서 친교적 관계 형성을 위한 의미 기능을 부담하는 경우가 잦은데, (22)가 이에 해당된다.

- (22) [상황] 일과 끝나고 두 달 선임이랑 대화
 나: 오, 이거 대박이지 말입니다.
 선임: 뭔데? 뭔데? 보여 줘 봐.
 나: 아, 맨입으로는 못 보여 드리지 말입니다.
 선임: 아나, 그런 게 어딴어? 고참이 보여 달라면 보여 주는 거지.

(23) 선임이랑 친하면 쓰는 게 ‘말입니다’였거든요. 안 친한데 괜히 ‘말입니다’를 사용하면 욕먹고 그랬거든요(육군, 수송 병과, 2015년 7월 전역).

이러한 언어적 선택은 친밀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일종의 ‘농담 관계(joking relationship)’처럼 ‘-지 말입니다’를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일정한 대체 표현이나 전략은 확인되지 않는다. 공손성에 대한 인식은 다분히 맥락 혹은 상황 의존적이어서 해당 상황에서 공손성을 드러내는 ‘(-지) 말입니다’의 의미 기능이 굳이 발현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5. 나오며

여타의 담화 공동체가 그러하듯, 군대 역시 언어적 관습을 공유하는 집단이다. 즉, 군이라는 공간 내에서 통용되는 언어는 사회적 행동의 양식으로 기능하며 이러한 양식은 군대 공동체의 유지와 확장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이다. 특히, 군대는 조직 중심적이며 상명 하달의 위계 관계가 두드러진다는 점, 인접 담화 공동체와의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은 폐쇄적 집단이라는 점에서 ‘고유의 독립되고 정교화된 언어 체계’가 강하게 형성되는 담화 공동체이다. 더구나 의무 복무 병사들의 시선으로 보면, 지속적인 노출과 습득을 통해 해당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아침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언어 규범과 관습을 강요받기 때문에 군 본연의 임무와는 무관한 ‘부담감’이 복무의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군대 언어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개선을 위한 접근 관점이다. 즉, 언어의 변화를 이끄는 힘은 일률적이고 일시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군대 언어를 ‘잘못된 표현, 틀린 표현’으로 간주하는 제도적 접근을, 수직적 명령 구조에 기반한 ‘지침 하달’식의 접근을 군대 언어 정책의 주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상 가능하듯이, 설사 그 공간이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언어 공동체 및 언어 주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섬세한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대중적 문제 해결 차원으로만 바라보는, 이러한 시선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이 글에서는 우선 군대 언어가 지니는 다양한 양상을 몇몇의 범주로 구획하여 살폈으며 같은 범주 내에 속하는 언어 표현이라 하더라도 개선의 필요성이나 대체 표현의 수용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몇몇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특정 군대식 언어 표현을 둘러싼 담화 공동체 내부의 역동적 힘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지) 말입니다’를 대상으로 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아무리 ‘개선’이라는 긍정적 의도를 견지한다고 해도 언어의 변화를 꾀하는 일은 사용의 맥락과 구성원의 언어적 선택 의도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향성은 당연하게도 ‘내부의 목소리’에서도 여실히 확인되는데, 군대에서의 해요체 사용에 대한 예비역 인터뷰 결과(이관희, 2017:92)를 소개하는 것으로 결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 (24) 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몇 십 년 동안 ‘요’ 쓰지 말라고 해 놓고 하루아침에 ‘쓰지 마.’ 이런다고 그게 굳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병장한테 생활관에서 ‘밥 먹었어요?’ 이게 어떻게 돼요. 왜, 예전에 이웃 부대끼리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고 ‘전우님, 용사님’ 이렇게 부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실제 현실은 보지 않고, 그냥 회의에서만 그렇게 결정된 거니까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죠(육군, 수송 병과, 2015년 7월 전역).

참고 문헌

- 박용한(1997), 《대우법 수행 중에 발생하는 규범충돌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 박용한(2000), “군대 영내 거주자 집단의 ‘-말입니다’ 사용에 관한 연구”, 《사회언어학》 8-2, 한국사회언어학회, 169-192쪽.
- 박용한(2008), “해군 장교 부인들 상호 간의 호칭어 사용 연구: 호칭어 ‘사모님’과 ‘선배님’의 사용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16-2, 한국사회언어학회, 249-272쪽.
- 박용한(2012), “국어의 존댓말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 군에서의 압존법 사용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20-1, 한국사회언어학회, 57-77쪽.
- 박용한(2016), “군대 언어의 제도적 특성 연구”, 《사회언어학》 24-3, 한국사회언어학회, 125-155쪽.
- 박재권(1999a), “일본어투 군대 용어 사용 분석”, 《일본학보》 42, 한국일본학회, 51-66쪽.
- 박재권(1999b), “일본어투 군대 용어 조사”, 《일본학연구》 4, 단국대 일본연구소, 73-91쪽.
- 박재권(1999c), “일본어투 군대 용어의 변화 실태 I”, 《일어일문학연구》 35-1, 한국일어일문학회, 63-87쪽.
- 박재권(2000), “일본어투 군대 용어의 변화 실태 II”, 《일어일문학 연구》 37-1, 한국일어일문학회, 69-91쪽.
- 박재현·박소연·양경희·이관희·조진수·호지은(2016), 《국군 장병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와 교육 자료 개발》, 국립국어원.
- 박재현·최병욱·박창균·이유미·최홍원·이관희·조진수(2015), 《바른·고운·쉬운 병영 언어》, 국방부.
- 이관희(2017), “군댓말 ‘(-지) 말입니다’의 의미기능 및 대체 양상”, 《회법 연구》 35, 한국회법학회, 63-94쪽.
- 이지수·조은영·정은진(2011), “군내 용어 순화를 위한 외래어 연구”, 《한국군사학논집》 67-1,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41-72쪽.
- 장소원 외(2011), 《군내 언어 개선 방안 연구》, 국방부.

- 장소원 외(2012), 《군 구어 교육 프로그램 연구》, 국방부.
장소원 외(2014), 《장병 병영생활 언어 교육 교재 개발 연구》, 국방부.
조진수·박재현(2017), “군대 은어 및 낮선 한자어의 사용자 인식 유형별
교육 방향”, 《사회언어학》 25-1, 한국사회언어학회, 213-238쪽.

